

「武士道」 뒤집어보기(其一)

鄭 章 植*

目 次

- 一. 머리말
 - 二. 「武士」의 등장과 「武士道」
 - 三. 武士의 実狀
 - 1. 古典에서 보는 武士의 모습
 - 2. 戰国時代 武將들의 実狀
 - 四. 결론
-

一. 머리말

지난 2006년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책은 「国家の品格」이었다. 저자는 수학자의 눈으로 ‘日本の 品格’을 높이자는 제언과 아울러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여, 2006년의 키워드에 “品格”이란 단어가 선정되었다.¹⁾

저자는 歐美 경험을 통하여, 일본인의 情緒가 歐美人보다 우수한데, 論理와 合理性만으로 개혁을 주장하는 美国化 때문에, 戰後 教育에서는 일본의 긍지와 자신감을 상실시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본 고유의 「情緒と形」이 잊혀지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저자의 주장은, 일본의 「情緒と形」은 우수하므로, 低級한 美国化에 끌려가지 말고, 孤高한 일본문명을 잘 지키자는 획기적인 提言이었으므로, 국제화라는 혼돈 속에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상쾌한 소식이었을 것이다.

* 청주대 일문과 교수, 일본학

1) 藤原正彦 著 . 新潮新書. 2005년 11월 20일 초판 발행으로 2006년 12월 25일에 39刷을 찍었다. 10일에 평균 1쇄씩 찍었으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겠다.

마침 安倍 前總理도 2006년 7월 『美しい国へ』(文芸春秋)라는 책에서 “아름다운 일본”을 만들자고 주장하였는데, 安倍 前總理는 자신이 일본을 위하여 “싸우는 정치가(闘う政治家)”가 되겠다고 공언하며, 자신의 정치목표 중에「教育の再生」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 일본 보수파 정치인의 주장과, 「国家の品格」이 주장하는 것은 軌를 같이 하는 점이 있으며, 이러한 책의 인기는 시대의 분위기를 띄우려는 어떤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国家의 品格”을 높이기 위하여, 저자는 일본인에게 「武士道精神の復活」을 강조하며, 인간의 행동기준이나 판단기준이 되는 틀은 도덕인데, 『武士道』는 훌륭한 도덕으로 ‘자애. 성실. 인내. 정의. 용기. 측은. 명예. 엄치’ 등이 포함된 훌륭한 도덕이므로, 교육에서 「武士道精神」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新渡戸稲造(1862~1933)가 1899년 서양에서 출판한 『武士道(Bushido, The Soul of Japan)』에서 말한 武士의 美意識을 높이 평가하며, 먼저 일본인이 이것을 회복시켜, 하찮은 논리에만 의존하는 모든 인류에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만큼 武士道가 道德的이며 教育에서 가르쳐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武士道가 만들어진 과정과 武士들의 활약상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二. 「武士」의 등장과 「武士道」

武士道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말이나, 武士道の 전체 모양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武士道を 말하기 전에, 우선 武士라는 계급이 어떻게 등장하였으며, 역할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8세기 일본은 天皇이 지배하는 고대율령국가로 발전하면서 唐의 제도를 도입하여 「公地.公民」 제도를 마련하였다. 백성과 땅은 모두 天皇의 것으로, 天皇이 임명한 관리가 다스리며, 군대는 농민이나 지방호족으로부터 징집된 병사로 구성된 상비군 조직이었다. 이러한 常備軍制는 차차 변질되어, 9세기경까지 군사력의 주체로 존재하였으나, 10세기에 들어와 군사력의 주체는 私兵으로 바뀌어 갔다. 이렇게 제도가 변질되는 데는, 唐의 제도가 일본의 지리적인 요인과 제도적인 모순으로 맞지 않았고, 또 귀족·지방호족·寺院의 득세로 「莊園」의 확장도 큰 원인이 되었다.

「莊園」의 확장으로 서서히 「公地.公民」제도가 무너져가자, 가난한 백성들은 나라에서 준 토지를 버리고 떠돌다가 유력자의 「莊園」에서 일하는 私民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한편 富益富로 비대해진 유력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私兵을 양성하였으나, 이들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는 私兵에게 官位나 징세권을 반대급부로 주며, 국가 정란이나 사변에 대응하는 무력 수단으로 고용하였다.

私兵으로 시작된 무장 세력을 나중에 武士라고 일컫게 되었으나, 이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주인을 위하여 싸우는 호위병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들에게 武士道라고 할 만한 도덕률은 아직 없었고, 오로지 목숨 걸고 주인의 땅과 재산을 지켜야만 하는 「一所懸命」만 있었다. 그러므로 무사는 폭력으로 백성을 위압하였고, 그들의 난폭함은 때로는 용맹으로 미화되기도 하였지만, 촌락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존재였으므로, 무사는 촌락사회의 리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가,戰国時代를 배경으로 한 黒沢明 의 『七人の 사무라이』(1954년)였다. 戰国時代に 주인 없이 떠돌던 七人の 사무라이가 산골 마을에 고용 되어, 때도적이 되어 마을을 괴롭히는 패전한 사무라이들과 싸워 마을을 지킨다는 이야기다. 「七人の 사무라이」는 픽션이지만, 사무라이는 촌락사회를 위협하는 폭력도 되었고, 또 촌락사회를 지키는 무력도 되었음을 보여 준다.

「公地.公民」제도가 붕괴 되어가자, 국가기강이 문란하여 朝廷과 귀족들은 유력자들의 私兵에게 신변의 안전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아울러 귀족들의 政爭이 늘어나 私兵의 역할이 많아짐에 따라,武力을 가진 유력자의 발언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1167년, 유력한 武家 출신인 平清盛(1118~1181)이 중앙정권에 진출하여 太政大臣으로 올랐고, 이를 계기로 平氏의 권세는 나는 새도 떨어트릴 만큼 強盛하였다. 『平家物語』序文에서도, 平氏が 한 시대를 주름잡으며 권세를 누리던 모습을 보고 “...우쭐대는 자도 오래 가지 않는다, 그 저 일장춘몽 같은 것...”이라며 그들의 몰락을 읊었으니, 平氏が 권세를 잡고 우쭐대던 꼴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우쭐대던 平氏의 榮華도 오래가지 않아, 平氏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平氏 타도를 외치며 관동지방의 源氏를 끌어들여 平氏를 몰아내게 하였다. 「源平の戦い」에서 승리한 源氏의 우두머리 源頼朝(1147~1199)는 조정으로부터 「征夷大將軍」이란 직함을 받아, 자신들의 근거지에 가깝고 防禦에 유리한 鎌倉에 幕府를 세우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후에도 무사들끼리 권력을 다투는 전란이 이어지는 戰国時代(1467~1568)가 있었으니, 이때는 무력이 우선하는 사회이었으며, 힘을 가진 자가 위로 치받고 올라가는 下剋上과 背信의 시대이었다. 이때는 힘이 법이었고, 이기는 쪽에 정통성이 있었다. 이 시대 武將들이 집권하는 과정을 보면 힘과 권모술수만 있었을 뿐, 거기에 武士道를 뜻한다는 “義. 仁. 禮. 誠. 忠 義”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徳川家康가 천하를 통일하고, 江戸幕府가 통치체제를 정비하며 무사의 지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武士道を 말하였으나, 그것도 전투자의 慣例나 氣風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武道와 같은 뜻으로 쓰여졌다. 중세에 쓰인 「弓矢(弓箭)の道」, 「弓馬の道」, 「弓矢取りの習い」, 「坂東武者の習い」, 「兵(つわもの)の道」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武士가 역사에 등장하여 江戸幕府에 이르기까지, 무사는 전투 속에서 살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시대이었으므로, 무사는 「もののふ・つわもの・武者」로 불렸으며, 武士의 慣例나 氣風은 「弓矢の道」, 「兵の道」, 「武士道」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武士道는 특정 계층이었던 전투자의 자세(마음가짐)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新渡戸稲造가 서양을 의식하여 武士道を 신흥일본의 國民思想으로 선전하며, 제목도 『Bushido, The Soul of Japan』으로 불렸으므로, 「大和魂(Soul of Japan)」과 동일시하게 되었다.

新渡戸의 『武士道(Bushido, The Soul of Japan)』가 출판되었을 때, 「武士道精神」은 武士와 상관없는 사상이라는 비판이 이미 나왔었다.²⁾ 그러므로 흔히 말하는 武士의 이미지는 新渡戸가 말하는 武士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新渡戸가 말한 武士의 이미지는 보통사람들에게 武士의 이미지로 인식되어졌고, 「国家の品格」에서도 新渡戸의 武士도가 武士의 이미지로 美化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新渡戸의 「武士道」를 논하기에 앞서, 江戸時代 以前 武士들의 활약을 통하여 武士의 実状과 武士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³⁾

三. 武士의 実状

1. 古典에서 보는 武士의 모습

1) 「今昔物語」에 나타난 전투자의 자세

당시 사람들은 어떤 武士를 바랐직한 武士의 모델로 보았으며, 어떠한 개성을 武士가 갖추어야 할 실력으로 인정하였을까? 「今昔物語」에는 무사들이 활약하였던 모습을 전하며, 武士를 주제로 한 설화가 몇 가지 전하고 있다.

2) 菅野覚明(2004), 「武士道の 逆襲」講談社現代新書, p.11

3) 新渡戸의 「武士道」는 다음 논문에서 논하기로 한다.

『今昔物語』에는 源賴信을 모델로 「武者」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源賴信은, 1031년 關東지방에 일어났던 平忠常의 亂을 평정하고 關東지방에 清和源氏の 세력을 펼친 인물이었는데, 『今昔物語』 「父子가 말 도적을 쫓아간 이야기」(卷25. 第12)에는 ‘전투자’의 마음가짐(「兵の心ば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河内守였던 源賴信가,東国에서 駿馬 한 필을 어렵게 京都로 사왔는데, 도적이 말을 훔치려고 京都까지 뒤따라 왔다. 그런데 源賴信의 아들이, 좋은 말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말을 얻으려고 비오는 밤에 아버지 집에 달려와 목계되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말을 달라고 하기도 전에 아들이 찾아온 속셈을 알고, 아침에 말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날 비오는 밤에 도적이 들어와, 말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 도적이 말을 타고 달아났다는 소리를 듣고, 源賴信은 자다가 번개같이 일어나, 도적이 달아났으리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혼자 말을 타고 뒤쫓아 갔다. 아들도 자다가 사람들의 소리에 깨어, 말을 타고 아버지가 쫓아갔을 방향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아들이 반드시 뒤따라 올 것이라 생각하였고, 아들도 아버지가 앞에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을 달렸다.

京都를 벗어나는 산 비탈까지 도망친 도적은, 이제 안심이라고 생각하며 말을 천천히 몰았다. 이 때 뒤쫓아 온 아버지는 마치 여기서 도적을 잡기로 약속이나 한 듯, 어둠 속에서 아들이 가까이 온 것을 확인도 않고, “저거다. 쫓라”하고 외쳤다.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활 소리가 났으며, 바로 무엇에 맞은 소리가 났다.

아버지는 소리만 듣고, “도적이 맞았다. 어서 말을 끌고 오너라!”하고 명령하였다. 아버지는 명령만 하고서는, 말을 끌고 오는 것도 보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잤다. 아들도 되찾아온 말을 하인에게 맡기고 그대로 잤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밤에 있었던 일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을 끌어내라”고 하며, 말에 좋은 안장까지 없어서 아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아들이 도적을 쏘아 맞춘 상으로 주었을 것이다.⁴⁾

이야기 속의 父子는 전투자의 바람직한 모델로 그려졌다.당시 사람들은 무사의 실력은 무사의 腕力이나 무예 등으로 눈에 보이는 실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재주.정신력.재산.일족의 위세.지위.용모.성격.기질 등,무사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하였으며,이것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으로 작용할 때 실력이라고 보았다.무사에게 육체적인 힘과 무예는 제일의 무기였지만, 그보다 정신력이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였다.

4) 『中学国語』1. 「馬盗人」要約. 教育出版株式会社. p.199-205

京都의 악명 높은 도적이 밤길에 武士(藤原保昌)를 만나 옷을 벗겨가려고 하였으나, 武士(藤原保昌)의 위세에 놀려서 굴복하였다는 이야기(卷25. 第7)에서는, 藤原保昌를 「兵の道」를 아는 사람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武士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兵の道」·「兵の威」·「兵の心ばえ」라고 『今昔物語』에는 말하였는데, 이것은 武士의 器量을 뜻하는 말이었지, 武士道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말하는 「兵の道」·「兵の威」·「兵の心ばえ」는 보이지는 않지만, 힘의 원천으로 또한 힘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필요한, 인격적이며 정신적인 것으로 보았다.

「父子가 말 도적을 쫓아간 이야기」에서 父子의 전투자다운 마음가짐을 모델로 그린 것은, 그들이 갖춘 전투자의 자세를 높이 칭송한 것이다. 東国에서 駿馬를 어렵게 구해오는 아버지나, 駿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달려오는 아들이나, 자다가 벌떡 일어나 곧바로 도적을 추격하는 父子나, 평소에 단련된 궁술로 도적을 명중시키는 아들 등, 모든 요소는 武士가 갖추어야 할 전투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今昔物語』에는 전투자(武者·兵)의 자세를 갖추지 않았다가 낭패한 무사 이야기도 있다. “악명 높은 도적이 길가에 죽은 척하고 누워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한 武士는 일행도 많았지만 조금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나감으로, 사람들은 겁쟁이 「武者」라고 비웃었다. 얼마 후 다른 武士가 가짜 시체 옆을 지나가는데, 한적한 산길에서 경계도 하지 않고 활로 시체를 찢어보다가, 죽은 척하고 있던 도적에게 기습을 당하여 죽었다.”(卷29. 第19)

또 다른 武士 이야기는 더 한심하다. “어떤 武士가 부인을 말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길을 가는데, 젊은이와 같이 걸어가게 되었다. 그 젊은이는 좋은 칼을 보여주며, 무사의 활과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무사는 좋은 칼을 갖고 싶어서 활과 바꾸었고, 조금 가다가 젊은이가 화살도 자기가 메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얼마 후 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젊은이는 갑자기 활로 무사를 위협하여 결박해 놓고, 무사가 보는 앞에서 부인을 겁탈하고 달아났다.”(卷29. 第23)⁵⁾

『今昔物語』의 武士 이야기는 사실성이 부족한 說話이지만, 주제는 무사의 마음가짐이나 전투자의 자세였으니, 이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였던 무사의 모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무사의 마음가짐이나 전투자로서의 자세에 一族의 흥망이 걸려 있었고, 일상의 생활태도나 마음가짐이 그대로 전투에 나타났으므로, 「兵の道」·「兵の威」·「兵の心ばえ」라는 말은 “武勇, 명예, 忠義”와 같은 武士道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자(「武者·兵」)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강조한 것이었다.

5) 이 이야기를 素材로 芥川龍之介는 「薔の中」을 썼다. 1951년 베니스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고, 1952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黒沢明 감독의 羅生門도 이 이야기에 「羅生門」(芥川龍之介 作)의 이미지를 통합한 영화였다.

2) 『平家物語』에서 齋藤実盛(? ~ 1183)의 죽음

松尾芭蕉(1644~1694)는 「奥の細道」 여행에서, 小松를 지나다가 太田神社(지금의 多太神社)를 참배하고, 齋藤実盛의 넋을 기리는 俳句를 남겼다. 芭蕉는 신사에 소장된 齋藤実盛의 유품인 투구와 갑옷의 비단 조각을 감명 깊게 보고, 그 유래를 『奥の細道』에 기록하였다.⁶⁾ 芭蕉가 일부러 기록한 齋藤実盛의 무용담은 武士道を 상징하는 유명한 逸話로 전해지고 있다. 『平家物語』에서 명장 면으로 기록된 「実盛最期」 이야기는 명예를 귀히 여기는 바람직한 무사상으로 전하여져, 오래전부터 武士의 전설이 되었다. 그래서 世阿弥도 武士를 다룬 「能」의 대표작으로 「実盛」를 만들었고, 『葉隠』에서도 바람직한 무사상으로 実盛를 꼽았으므로, 武士 출신인 芭蕉도 「奥の細道」 여행에서 太田神社를 찾았다.

이곳 小松의 太田神社에 참배했다. 이 신사에는 齋藤実盛의 유품인 투구와 갑옷의 비단 조각이 소장되어 있다. 옛날 実盛가 源氏 of 부하로 있을 무렵, 源頼朝公으로부터 하사 받은 것이라고 한다. 과연 보통의 무사가 지닐 만한 것은 아닌 듯, 투구 앞부분의 차양에서 바람받이까지 국화 당초무늬 조각과 금박을 아로 새기고, 앞면 이마를 덮는 부분에는 용머리 쇠장식이 있으며, 그 위에 투구 뿔이 달렸다. 한편 신사의 유래를 적은 책에는, 実盛가 전사한 후 木曾義仲公께서 이를 슬퍼하여 그의 죽음을 추모하고 전승을 기원하는 글에 이 물품 두 가지를 곁들여서 이 신사에 봉납하셨다는 것과, 桶口次郎가 심부름꾼으로 왔던 일들이, 마치 눈앞에 보듯이 생생하게 쓰여 있다.

1183년 7월, 源平 兩軍은 越中지방에서 격돌하였다. 源氏측의 책략에 빠진 平氏측은 좁은 골짜기로 몰려 궤멸적인 타격을 받아, 살아남은 패잔병들도 木曾義仲 부대에 쫓겨 패주하게 되었다. 이때 패주하는 平氏측에서 名品 무기와 갑옷을 갖추고, 名馬에 名品 안장을 갖춘 장수 차림의 武士가 나타나서 용감하게 추격을 막았으므로, 훌륭한 武士라고 생각하여 이름을 밝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武士는 이름 밝히기를 거부하며 용감히 싸우다가 결국 源氏측 武士에게 목이 잘렸다.

源氏측 장수 木曾義仲은 어릴 때 実盛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짝이는 것이 있어서 実盛를 잘 아는 桶口次郎를 불러 首級을 살펴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実盛의 首級이라고 하였다. 実盛이라면 칠십이 넘었을 터인데, 검은 머리가 이상하여 머리를 물로 씻어보았더니 과연 백발이 나왔다. 実盛는, 늙은이가 전투에 나오면 적이 상대해 주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6) 현재 石川県 小松市の 多太神社에 보관된 투구와 갑옷 일부는 重要文化財로 지정되었다.

또 온갖 명품 무기로 盛裝한 장수의 모습으로 전투에 나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源氏측 장수 木曾義仲은, 적군이지만 용감하게 전사한 実盛을 기리며 이곳 神社에 実盛의 유품을 봉납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実盛 이야기는 武士의 명예로운 죽음으로 美化되어,『平家物語』를 통하여 후세에 전해졌다.

実盛은, 70세가 넘는 노인으로 武功을 세우기에는 너무 늙었고, 또 몇 년 전 富士川 전투에서 물새 소리에 놀라 도망친 것을 일생의 수치로 생각하였다. 武士의 명예 회복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패전의 수치를 만회하는 것이었으니, 늙은 実盛에게는 장렬하게 전사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한 実盛은, 錦衣還郷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고향 越前에서 최후를 장식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將帥에게만 허용되는 비단옷을 간청하여 입고, 마지막 전투를 치장하는 준비를 갖추었다. 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는데, 적의 장수가 늙은 武士라고 상대하지 않으면 장렬하게 최후를 장식할 무대가 없어지므로, 白髮을 검게 염색하고 당당하게 싸우려는 모습은 애처롭게 보이지만 과장된 느낌이 든다.『平家物語』가 픽션이라는 것은『徒然草』226단에 잘 기록되었다.⁷⁾

『徒然草』와『平家物語』의 기록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行長도 역시 세상에서 失意한 사람이라, 平安말기 이래, 현실의 불안과 모순으로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불교적 無常觀으로 세상을 보았을 것이다. 行長은 平安 귀족 후예였으므로, 잠시 세상을 주름잡았던 平氏들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며, 인간이 걸어가는 운명의 필연을 보며, 동정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平家物語』는 장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전해졌으므로, 전과 되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의도와 다른 후세 사람들의 생각도 더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찌하였던『平家物語』가 픽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実盛의 최후 결전을 보면 부자연스러운 연출이 보인다.

実盛이 머리를 염색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전투에 나서는 장수 급의 武士는 투구로 머리를 덮어쓰고 얼굴도 가리는데, 굳이 머리를 염색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武士들이 접전하기 전에는 출신과 신분을 밝히는 의식(名乗り)이 있는데, 칠십 노인 実盛이 전투 직전에 자신을 밝히는 목소리도 노인임을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源氏측 武士는 実盛의 首級을 가져가서, 머리를 씻겨볼 때까지 노인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되어있다. 実盛의 盛裝에 여러 가지 名品이 언급되는 것은, 実盛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연출로,『平家物語』에서「忠度の最期」나「敦盛の最期」에 보이는 것과 같은 표현 방법이다.

7) …行長 스님이『平家物語』를 지어, 生仏이라는 장님에게 가르쳐서 전하게 하였다. 그 장소가 比叡山이었으므로, 延暦寺 이야기를 특히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왜 実盛이 명예에 집착하는 武士로 그려졌을까? 쉽게 말하자면, 무사가 전투에서 적을 무찌르고 수급을 따가는 야만적인 행위는 戦功을 확인시키는 방법이었고, 이러한 戦功에는 명예와 이익이 따랐기 때문이다. 또 장렬한 戦死도 명예와 이익이 따랐다. 즉, 자기의 존재 가치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 보상을 받았다. 그 보상이란 전투가 끝난 후에 「所領」이나 「知行」과 같은 물질적인 보상으로 받았지만, 때로는 후손들에게 보이지 않는 명예로 전해져, 후손들을 돋보이게 하는 後光으로 작용하여 名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조상이 전투에서 戦功을 세웠다는 것은 精強한 군사를 많이 거느렸다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또한 많은 領地를 가진 유력자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領地의 이름을 자신들의 姓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지키며, 전투에 임하는 「名乗り」에서 누구의 후손이거나 어디 출신이라고 외치는 것은 武士의 브랜드(Brand)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원래 武士가 싸우는 목적은 領地를 지키거나 얻는 것이었고, 領地야말로 그들의 실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신들의 근거지나 일족의 이름은 무사의 실력, 즉 브랜드였다. 그러므로 전투에서 一族의 명예를 위하여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거나 높이는 방법이었다.

明治維新 이후 호적제도로 누구나 「名字」를 갖게 되어, 근세 이후 「名字」는 단순히 개인을 식별하는 기호가 되었으나, 중세 武士들에게 「名字」는 결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다. 그들이 외치는 「名字」는 실력이었고, 그것을 얻으려고 조상이나 一族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말해주는 증표였다.

왜란 때(1597) 포로로 잡혀가, 3년 동안 그들의 蠻俗을 눈여겨보았던 姜沆은 『看羊錄』에서, 武士들의 이상한 習俗을 다음과 같이 看破하였다.

전투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곧 토지로 상을 주어, 식읍이 혹은 8~9주에 뺀친 사람도 있고,...<中略>... 공이 없는 사람은 토지 를 썩삭 당하여 사람 축에 끼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주륙의 별을 기다리지 않고 칼로 자결하고 말며, 전몰한 將士에 있어서는 그 자제가 그 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중략>... 분이 나 다투다가 결투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그 구적을 찢러죽이고 또 따라서 자기 목을 찢르고 배를 가르는데, 군중이 모두 감탄하고 애석히 여기며, “참으로 장부답다”하여 그 자손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과감하게 죽은 사람의 후예다”하여, 바로 귀한 훈치를 얻게 됩니다. (『看羊錄』「왜국 팔도 66주도」)⁸⁾

이러한 전통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리는 비겁한 행동이나 불명예는

8) 姜沆『看羊錄』, 국역 해행총재Ⅱ, p.127

일족이나 후손의 행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사가 전투에 나서며 외치는 「名乗」¹⁾는 조상의 後光인 브랜드를 선전하는 儀式이었으니, 만약 実盛이 머리를 염색하면서까지 장렬하게 최후를 맞지 않았다면, 一族이나 後孫은 패전의 수치를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브랜드 가치는 폭락하였을 것이며, 아울러 불명예와 가난도 대물림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実盛의 죽음은 勇氣나 忠義보다, 자신의 忠義를 인정받으려는 계산된 연출이었거나, 후세에 픽션을 加味시킨 武勇談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戦国時代 武将들의 実状

1) 織田信長

NHK 大河 드라마의 단골 메뉴는 사무라이 이야기다.平成 4년에 방영된 “信長, King of Zipangu”로 信長の 인기는 높아졌고, Video Game으로 나왔던 “信長の野望”도 인기가 있었다.信長이 밤중에 성을 빠져나가 적의 虚를 치는 기습작전으로 桶狭間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그려져, 信長을 奇襲戰의 鬼才로 여겨, 많은 神話나 伝説이 만들어졌지만, 実像과 虚像의 차이는 크다.

織田信長(1534~1582)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18세에 領主가 되었지만, 尾張지방을 지배하던 斯波氏의 末席 家臣에 지나지 않았다.信長은 三男이었고, 아버지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들이었지만, 형제들과 상속권 쟁탈전에서 이겨 家督을 상속하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자 그는 주변의 적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드디어 24세에 斯波氏를 쳐부수고 尾張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6세 때, 桶狭間 전투에서 信長은 2천여 명으로 3만여 대군을 이끈 今川義元를 기습 공격하여, 今川義元의 首級을 거두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이야기에도 속설이 덧붙여 “信長 神話”가 만들어졌다. 桶狭間 전투는 今川義元의 大軍(豪族들의 聯合軍)의 弱点인 명령 계통이 취약한 것을 역이용하여, 信長軍이 폭우에 빠른 기동력을 발휘하여, 縦隊로 陣形을 이룬 적의 측면을 기습 공격하여 本陣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었다.

信長은 출전하기 전에 장병들을 이끌고 神社에 참배하였는데, 진승을 기원하는 願文을 읽는 순간 神殿 안에서 甲冑 부딪치는 소리가 나며, 白鷺가 날아갔다. 아침 하늘에 날아가는 백로는 吉兆로 여겨져, 불안한 마음으로 참배하였던 장병들은 필승을 확신하며 용기백배하여 결전에 임하였다고 한다. 갑주 소리와 백로는 信長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으니, 그는 이런 방법으로 의기소침하던 부하들의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의 기발한 ‘트릭’과 桶狭間 전투 승리로 “信長

神話”가 만들어졌으나,以後 전투에서 항상 그는 적보다 많은 병력을 동원하였다.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兵農分離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農民은 전투에 동원되어 싸우다가, 농번기에는 전투를 쉬는 것이 상식이었으나, 信長은 영지에 「樂市樂座」라는 시장제도를 도입하여 재정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마련한 경제력으로 常備軍을 조직하였으니, 농번기에 휴전하는 종래의 병력보다 강할 것은 당연하였다. 당시 전투에 동원되는 병력은 호족들의 연합군이었으므로, 명령 계통이 달랐고, 동원되는 호족들의 이해관계로 전투 양상이 바뀔 수 있었는데, 상비군은 장비나 훈련에서 통일을 기할 수 있으며, 빠른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信長の 독창성을 말할 때, 총포부대로 武田軍의 기마부대를 제압한 長篠戰鬪(1575)를 손꼽으나, 이 전투의 승리도 「樂市樂座」와 兵農分離제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43년에 일본에 소개된 조총이 유력한 火器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大名들은 비싼 화기를 대량으로 도입하여 총포부대를 갖추는 경제력이 없었다. 그러나 信長은 경제력이 있었기에 대량으로 조총 三千정을 구입하여 직속 총포부대를 조직하였고, 이들을 3 교대로 発射하여 武田軍이 자랑하던 기마부대의 돌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독창적인 전술을 海戰에서도 이용하여, 1578년 信長の 水軍은 大坂 本願寺에 兵糧을 지원하려는 毛利 水軍을 격파하였는데, 여기에는 信長이 고안한 鉄甲船이 있었다. 毛利 水軍의 주축은 해적으로 잔뼈가 굵은 水軍이었지만, 새로운 전술로 大砲를 탑재한 철갑선 7척이 뿔어대는 포격에는 당해낼 수 없었다.

信長은 사람을 쓰는 데도 특별하였다. 그는 재능이 있으면 신분이나 因緣에 관계없이 중용하였으나, 재능이 없으면 혈연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잘라버렸다. 이러한 능력중심으로 발탁된 자가 秀吉이었고, 이러한 능력주의로 全国 통일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

그는 尾張를 통일하고, 幕府 将軍을 옹립하여 京都로 들어가면서, 눈에 가시 같은 승려들이 웅거하던 比叡山을 불태우고 승려들을 학살하며 천하통일의 기틀을 만들었으나, 그도 결국 부하 明智光秀의 배반으로 자결하여, 천하통일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 시대를 움직인 信長을 볼 때, 무엇을 「武士道」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서 武士道の 徳目인 “義. 勇. 仁. 禮. 誠. 名譽. 忠義”를 찾기보다는,⁹⁾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제도를 독창적으로 개발하고, 부하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오로지 領地 확장에 성공한 武將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대의 변화를 잘 파악하여, 기업 확장에 성공하여 財界의 선두

9) 이것은 新渡戸稲造의 『武士道』에서 무사의 주요 徳目으로 나열한 것이다.

를 달리다가, 重役의 背任으로 不渡내고 자살한 기업가와 같으니, 武士道보다는 인생의 反面教師로 삼을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2) 豊臣秀吉

微賤한 출신으로 학식도 없는 가난한 떠돌이가 잔재주 하나로 출세하여 천하를 통일하였으니, 세간에서는 秀吉(1536?~1598)을 亂世의 영웅이라 부른다. 또 東洋三國을 뒤흔든 “해외원정”으로 일본의 武威를 날렸다고, 關西지방에서는 秀吉을 존경하는 武將으로 손꼽으며, 그에 대한 成功神話나 전설이 많이 전해진다.

秀吉이 23세 때, 信長の 窺신 담당으로 있을 때, 窺신을 품안에 넣어서 따뜻하게 덥혀놓아서 信長の 눈에 들었다는 이야기로 유명한데, 이것도 후세의 창작이라고 한다. 추운 겨울에 武將이 버선도 안 신고 맨발에 窺신을 신는다는 것부터 이상하지만, 秀吉의 중요한 伝記에 없던 이야기가 다른 책에 한 줄 나온 것이 사실처럼 전해졌다고 한다.¹⁰⁾

秀吉이 信長の 하급 무사로 근무할 때, 清洲城의 무너진 성벽을 3일 만에 수리하여 信長の 신임을 얻었다는 것도 후세에 꾸며진 이야기라고 한다.¹¹⁾ 어찌하였든 많은 성공신화와 전설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다.

秀吉이 武將으로 발탁된 것을 보면, 능력주의로 사람을 등용하던 信長の 눈에 들었던 모양이다. 秀吉은 적의 성을 공략할 때 힘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성으로 들어가는 식량이나 물을 차단하여 적이 항복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작전은, 戰力을 소모하지 않고 승리하였으므로, 秀吉쪽은 戰力면에서 많은 이득이 있었을 것이다. 한 편으로는 적의 부상자도 잘 치료하여주는 人氣 작전을 구사하여, 그의 휘하에는 많은 장졸이 모여들었고, 信長の 뒤를 잇는 경제정책과 鳥銃을 갖춘 兵農分離型 부대를 물려받았으므로, 강한 경제력과 기동력 있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秀吉은 독창성을 발휘하여, 장기전에 필요한 병참과 보급 시스템을 갖추었다. 당시의 전투에서 兵糧이나 보급의 기본은 각자가 모든 것을 지참하는 것이었으므로, 적지에서 병량이 부족하면 현지조달이 원칙이었고, 약탈은 일상적인 행위였다. 이러한 전투는 短期戰에는 가능하였지만, 長期間 遠征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秀吉은 보급전담 부대를 두어 지속적인 보급이 가능하였고, 장기적인 포위작전도 감당할 수 있었으므로, 九州 遠征이나 3개월에 걸친 小田原城

10) 後藤寿一(1996). 『誰も知らなかった豊臣秀吉』. 勁文社. p75

11) 앞의 책. p78

포위작전도 가능하였다. 이러한 작전이 가능하였기에, 그는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명나라로 쳐들어가려는 야망까지 품게 되었다.¹²⁾ 이러한 원대한 구상 아래, 秀吉軍은 水陸並進으로 中原에 쳐들어가고 하였으나, 조선 水軍의 활약으로 보급로가 차단되어, 결국 야망은 좌절되었다.

미친한 출신에서 최고 권력자로 발돋움하려는 秀吉의 권력에 대한 욕구는 냉혹하였다. 그는 과거 主君(信長)의 아들이 장래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信長의 3남(信孝)을 자살하도록 만들었다. 秀吉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茶道담당 千利休를 자살시켰고, 장래에 関白으로 삼으려던 조카 秀次도 평소의 품행을 문제 삼아 高野山으로 추방하였다가 결국 자살시켰다.

秀吉이 헛된 야망을 위하여 일으킨 조선침략은, 두 나라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었는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에서는 역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왜곡된 영웅 신화로, 秀吉을 시대의 영웅으로 칭송하며 美化하는 모습을 볼 때, 잘못 인식된 영웅神話나 武士道가 얼마나 사람들을 誤導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겠다.

秀吉의 출세와 治世를 볼 때, 武士道라고 하는 “慈愛.誠實.忍耐.正義.勇氣.惻隱.名譽.廉恥”의 徳目도 찾기 어렵다.¹³⁾ 그는 民衆의 행복이나 국가 大義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대한 집착과 일신의 야망을 위하여 猛進하였다.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經營技法과 출세에 대한 냉혹한 집착으로 크게 성공하여 한 시대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후세교육의 모범이 된다는 武士道에서 어떤 덕목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고, 후세들이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3) 徳川家康

일본 역사에서 徳川家康(1542~1616)만큼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도 드물 것이다. 어린 시절을 人質로 보내다가, 마지막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으니, 그에 대한 성공 에피소드도 많고, 역시 꾸며진 전설이나 미화된 이야기도 많다.

家康은 三河의 岡崎城主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岡崎城은 동쪽에 今川義元, 서쪽에 織田信秀 사이에 끼어서, 戰國의 난세에 편할 날이 없었다. 家康은 6살 때 今川義元쪽에 인질로 잡혀가다가 탈취당하여 織田信秀에게 보내졌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近臣에게 암살당하고, 岡崎城은 今川義元에게 합병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1560년 今川義元가 桶狭間에서 織田信長의 기습으로 전사하자, 岡崎로 귀환할 수 있었다. 어린 나이에 오랜 인질생활은 그에게 많은 교훈을 주

12) 笠谷和比古, 黒田慶一(2000) 『秀吉の野望と誤算』, 文英堂, p18

13) 이 徳目들은 『國家の品格』에서 武士道の 덕목이라고 말한 것이다.

있을 것이며, 그 때 참으며 기다리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家康가 어린 나이에 굴욕을 참으며 今川義元에게 충성을 보인 것도, 언젠가는 다시 領地를 되찾겠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今川義元가 전사하자, 家康은 서서히 今川 세력에서 벗어나, 信長과 동맹을 맺어 本能寺에서 信長이 죽기까지 20여년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 戰國時代에 20여년의 동맹관계는 드문 일이어서, 家康을 義理가 굳은 사람이라고 한다. 또 家康의 부인과 長男이 적과 内通하였다고 信長이 의심하였을 때, 家康은 과감히 부인을 죽이고 장남을 割腹시키며, 信長에게 충성을 증명해 보였고, 信長이 죽고 秀吉이 권력을 차지하자 역시 秀吉이 죽을 때까지 충성하였다.

이것은 家康이 義理가 있었다기보다,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른 것뿐이었다. 「鳴かぬなら 鳴くまで待とう ほととぎす」라는 「川柳」는 바로 家康이 때를 기다린 것을 잘 비유한 것이다.

家康의 遺訓이라고 전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人の一生は、重荷を負うて遠き道を行くが如し。急ぐべからず。不自由を常と思へば不足なし。心に望み起こらば、困窮したる時を思い出すべし。堪忍は、無事長久の基。怒りは敵と思へ。勝つことばかり知りて、負くることを知らざれば、害その身に至る。己を責めて、人を責むるな。及ばざるは、過ぎたるに勝れり。

家康의 성공철학은 오로지 「忍」이란 하나의 단어로 집약된다. 그러나 그의 성공 과정을 겉으로 보면 “참았다”고 할 수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기다렸다”는 것이 좋을 것이다. 信長과 20여년 동맹관계 동안, 어려운 주문에도 그는 충실히 움직였다. 이것을 보고, 家康이 의리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나, 信長の 군사력이 막강하며, 信長の 성격이 불 같아서, 명령불복종은 곧 끝장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 어찌 불복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家康의 성공은 亂世에 成長株를 잘 골라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 家康의 입장에서는, 信長の 敵으로 막강한 騎馬隊를 자랑하는 武田쪽에 불을 기회도 있었으나, 장래를 생각하여 불 때 信長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先見之明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기회가 왔던 것이다.

흔히 武將들이 행동을 결정하는 動因은 義理라고 하나, 운명의 갈림길에 섰을 때는 가차 없이 이득을 택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家康이 妻子를 희생하면서까지 信長에게 복속한 것은 의리보다 이득을 택한 것이

14) 최근의 연구에서는 水戸黄門이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堺屋太一(2007) 『日本を創った12人』. PHP文庫. p195

아닐까? 또 信長の 뒤를 이어받은 秀吉이 출신 성분과 학식이 별 볼일 없었지만, 복속한 것도 때를 기다린 것이었을 것이다.

家康은 막부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大名들에게 무척 냉혹하고 非情하였다. 특히, 「関ヶ原戦闘」에서 家康을 도운 福島正則의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결국은 숙청시켰고, 秀吉의 심복이었지만 「関ヶ原戦闘」에서 家康쪽에 붙은 加藤清正에게 熊本의 54 만석을 주었다가, 清正의 아들代에 가서는 역시 숙청시켜버렸다. 그중에서 가장 냉혹한 처사는, 秀吉이 죽으면서 간곡하게 부탁한 秀頼에게 시비를 걸어, 大坂城을 2 번이나 공격하였다가, 결국 大坂城을 陷落시키며 秀頼母子를 자결하게 만들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家康은 어려운 기업전쟁에서 좋은 우량주에 투자하여 성공하였고, 나중에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냉혹하게 추진하여 財界의 지배자로 올라선 ‘경영의 鬼才’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한데, 家康이 보여준 “義. 勇. 仁. 禮. 誠. 名譽. 忠義”의 어떤 덕목을 후세들이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4) 毛利元就

戦国時代에는 힘 닿는 데까지 남의 영지를 빼앗아 영토를 넓힌 무장들은 많았으나, 나중에 경영과 유지가 어려워 도로 다른 무장에게 빼앗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中国」지방의 미미한 호족에 지나지 않았던 毛利家は, 戦国時代를 헤치고 성장하여 「中国」지방을 거의 손에 넣고, 明治維新에 이르기까지 300여년 영지를 보존하였다. 이렇게 毛利家が 성장을 거듭하며 雄藩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도 武士道가 있었을까?

毛利元就(1497~1571)는 차남이었으나, 兄이 죽고 형의 상속자가 夭折하자, 本家 상속을 둘러싼 싸움에서 동생을 제치고, 家督을 이어받아 中国지방 郡山城主가 되었다. 당시 中国地方 북쪽에는 尼子氏가, 남쪽에는 大内氏가 큰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그 중간에 30여 호족이 서로 세력 확장을 다투고 있었다. 그러므로 어딘가 兩大 陣營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다. 毛利家は 처음에는 大内氏 세력 아래 있었으나, 尼子氏 세력이 강해지자 어느 사이에 尼子氏쪽으로 진영을 바꾸었다.

毛利元就는 전쟁으로 세력을 넓히기보다 結縁정책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毛利家は 中国지방의 호족이었던 小早川家와 인연이 있었으므로, 1541년에는 3남 隆景(1533~97)을 小早川家로 보내어 집안을 잇게 하였다. 그것은 小早川家の 当主 興景이 죽으면 後嗣가 없는 것을 계산에 두었기 때문인데, 합법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이었다. 물론 小早川家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었으나, 元就는 재빨리 반대파를 제압하여 버렸다. 같은 방법으로 次男 元春

(1530~86)을 中国지방의 호족 吉川家(元就의 妻家)에 보내어, 그 집안의 内訌을 틈타 1545년에 元春이 家督을 상속받게 하였다.

장남은 毛利家, 차남은 吉川家, 3남은 小早川家を 이어받아, 毛利家を 중심으로 吉川家は 山陰지방을, 小早川家は 山陽지방을 맡아 「毛利兩川」의 형상이 되었으므로, 毛利元就는 원대한 계획을 착실히 실천에 옮겨갔다. 그는 우선 집안의 後見人格이던 井上 一族을 1550년에 몰아내고, 오랫동안 毛利家を 압박하였던 尼子氏와 大内氏에 대책을 강구하였다. 元就는 한 때 尼子氏와 형제관계를 맺기도 하였고, 大内氏의 후광으로 官位를 받으며 追従外交를 구사하였으나, 두 아들을 吉川家와 小早川家に 入養시켜 毛利家の 세력이 넓어지자, 먼저 大内氏와 손잡고 尼子氏와 관계를 끊었다. 尼子氏는 분노하여 싸움을 걸어왔지만, 그럴 때마다 大内氏의 힘을 빌려 물리치고 조금씩 주변의 호족들을 併呑하였다.

그러다가 드디어 大内氏와 대결하게 되었다. 大内義隆이 家臣(陶晴賢)의 모반으로 살해되고, 陶晴賢이 大内家を 접수하려는 것을 好機로 삼아, 1555년 陶晴賢과 「嚴島の戦い」에서 압승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元就의 3남 小早川隆景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大内氏의 영지 周防과 長門을 손에 넣었고, 1566년 尼子氏를 무너뜨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거의 일방적인 싸움이었으므로, 元就는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中国지방 전체를 장악하였다.

中国지방 제패를 눈앞에 둔 1557년 11월, 61세의 元就는 隆元(35), 吉川元春(28), 小早川隆景(25) 세 아들에게 편지로, 교훈이라 할 수 있는 14개조의 「三人心持之事」를 보내며, 毛利家の 安泰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결속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것이 후세에 「三本の矢」이야기로 와전되어, 마치 毛利家の 家訓처럼 알려졌다.

毛利家の 3 형제는 아버지의 교훈을 잘 준수하여, 여러 전투에서 결속과 협력으로 毛利家の 安泰를 유지하였는데, 특히 「関が原戦闘」에서는 집안의 安泰를 위하여 얼마나 눈치를 보았는지 알 수 있다. 「関が原戦闘」에서 毛利輝元(元就의 손자:1553~1625)를 필두로 吉川広家(元就의 손자:1561~1625), 小早川秀秋는 당연히 西軍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¹⁵⁾ 그러나 실제로 전투에 임하면서, 西軍의 戦勢가 불리함을 눈치챈 小早川秀秋(19)가 東軍으로 돌아섬으로 西軍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또 吉川広家도 東軍과 内通하여, 「関が原戦闘」에서 毛利家の 역할이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史実이다.

15) 小早川秀秋(1582~1602):秀吉의 조카인데, 秀吉의 養子가 되었다가 후에 小早川隆景(元就의 3남)의 養子로 들어갔다.

이러한 背信과 内通은 오로지 집안의 安泰를 위한 ‘保險가입’이었으므로, 西軍의 총대장이었던 毛利輝元는 당연히 죽을 목숨이었으나, 친척인 吉川広家와 小早川秀秋의 변호로 겨우 목숨을 扶持하였고, 領地가 周防. 長門으로 줄었지만 毛利家を 보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毛利家가 성장하여 雄藩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보면, 마치 산업사회에서 企業家の 成功神話의 뒷면과 같이, 무수한 권모술수와 배신이 있었고, 거기에 따르는 流血도 많았다. 背信과 모략이 난무하던 戰国시대에, 武士가 一國의 주인으로 安泰를 도모하려면, 武士道라는 “慈愛. 誠実. 忍耐, 正義. 勇氣. 惻隱. 名譽. 廉恥” 같은 듣기 좋은 德目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四. 결론

「武士. 武士道. 사무라이」라는 말은 일본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있으며, 매우 美化되어 사용되고 있다. 2004년에 개봉된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미국영화를 비롯하여 ‘사무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영화는 대개가 ‘사무라이’를 美化하여 보여주었다. 이것은 新渡戸稲造가 서양을 의식하여 출판한 『武士道(Bushido, The Soul of Japan)』라는 책으로 洗腦된 오리엔탈리즘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高揚된 국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國家의 品格”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적인 자신감의 発露일 것이다. 일본에는 경제력과 아울러 자랑할 만한 정신이 있다는 것인데, 『國家の品格』 저자가 주장하는 정신의 하나는 武士道이었다.

武士道の 역사를 뒤집어보면, 江戸時代 以前 武士의 뒷모습은 忠誠스럽고 正義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오로지 主君에게 忠誠스럽게 보여야만 領地를 보장받아 一族의 번영을 영위할 수 있었으므로, 칠십 노인이 白髮을 염색하고 서슴없이 戰場에 뛰어드는 오버액션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後世에 충성스러운 武士의 모델로 미화되어졌다. 원래 武士는 ‘보디가드’이거나 ‘戰鬪者’로, 그들은 主君이나 領地에 집착하는「一所懸命」정신이 투철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이 살벌한 싸움터에서 생존하려면, 평소에 전투자의 자세를 갖추어야만 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臨戰態勢가 요구될 뿐이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義. 仁. 禮. 誠. 忠 義”와 같은 품위 있는 단어는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았고, 오로지 전투에 이겨서 얻는 反討給付가 중요한 목적이었다.

戰国時代를 대표하는 武將들을 보아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오로지 領地를 확장하거나, 살벌한 戰国時代に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下剋上이나 背

信은 삶의 일부이었다.

『国家の品格』의 「武士道精神の復活を」章에서, 武士들은 전투에서 비겁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平家物語』의 말미를 장식하는 「壇の浦」 전투에서, 義経는 “敵船의 뱃사람을 조준하여 쏘라”고 명령하여, ‘船頭’를 잃은 敵船이 「壇の浦」의 거센 조류에 움직일 수 없도록 하고, 源氏 무사들은 平氏측 배로 올라가 비 전투원인 뱃사공까지 죽여서 敵船의 機動力을 마비시켰다. 원래 전쟁이란 인간의 온갖 비열함이 모두 동원되는 치사한 도박인데, 武士들의 전투라고 산뜻한 페어플레이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과거를 기록할 때 美化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역사에서는 특히 美化작업이 많았고, 이러한 美化의 시작은 문학이었다. 문학으로 그려진 武士道の 虚構를 이야기 밖으로 끌어내어 교육에서 云云하는 것은, 마치 심청이 동상을 校庭에 세워놓고 孝道를 찬양하는 난센스 같지 아니한가? 오늘날 일본에서 古典文学의 虚構를 사실이라 믿으며 武士道를 高揚하는 움직임을 보면, 『古事記』와 『万葉集』 연구로 「大和魂」을 찾겠다는 역사의 反動처럼 보인다.

【参考文献】

- ・姜沆 『看羊録』. 국역 해행총재Ⅱ.p.127
- ・『今昔物語』. 日本古典文庫11.河出書房新社
- ・『平家物語』. 日本の古典7.世界文化社
- ・新渡戸稲造(1938) 『武士道』(矢内原忠雄訳)・岩波文庫. p25-31
- ・風巻絃一(1979) 『戦国名将に学ぶ勝ち残りの戦略』. 三笠書房. p.107-118
- ・北島正元(1998) 『徳川将軍列伝』. 秋田書店. p.22-63
- ・海原峻 (2005) 『武士道日本文化論』. 梨の木舎. p.100-128
- ・藤原正彦(2006) 『国家の品格』.新潮社. p.116-129
- ・菅野覚明(2006) 『武士道の逆襲』. 講談社現代新書. p.11
- ・堺屋太一(2007) 『日本を創った12人』. PHP文庫. p.195

要 旨

2006年、日本で『国家の品格』という単行本が人気であった。その影響で「品格」という言葉がキーワードに選ばれた。著者は、新渡戸稲造が『武士道』で強調した武士の徳目を教育の場で生かすことを強調した。新渡戸稲造の『武士道』を論ずる前に、江戸時代以前の「武士・武士道」の実状をみると、『今昔物語』には「武士・武士道」という言葉はなく、「戦闘者」の姿勢や心ばえを強調した。

『平家物語』の「実盛の死」を忠誠なる武士のモデルとして後世に推仰したが、それは実盛の功名心に後世の虚構が加えられたと思われる。武士が戦闘で闘うのは所領や知行を得る方法であったので、武士は一族の繁栄や名誉のため名誉なる死に方を選ぶしかなかった。

戦国時代の武将の実状をみると、織田信長は独創的な戦略で時代を先占し、豊臣秀吉は持ち前の考えで天下を得た。徳川家康は逆境を堪えて天下を統一し、毛利元就は結縁政策で領地を拡張した。それぞれ武将の出世の裏面には裏切りと下剋上が日常茶飯事であった。戦国時代の武将の活躍を見ると、武士道と言える「義.仁.禮.誠.忠義」などを見出すことは難しい。

キーワード：武士、武士道、一所懸命、兵の道、裏切り、下剋上、美化

투 고 : 2007. 8. 31
1차 심사 : 2007. 9. 8
2차 심사 : 2007. 9. 29

住 所 :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번지
電 話 : 043-229-8342
e-mail : joshua@cju.ac.kr